

간행사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러시아 연구』 제 15권 제 2호를 역사학자 이인호 교수님 고회 기념 특별호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호 교수님은 러시아연구소의 창설자이시며 『러시아 연구』의 창간자이시기도 합니다.

미국 하바드 대학에서 18세기 러시아 지성사에 관한 연구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1972년 귀국하신 후 이인호 교수님의 활동은 한국 러시아학의 선구자요 개척자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외국어대학에 러시아어과가 개설되어 있었기에 이미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의 전공자들은 배출되었습니다만, 역사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러시아 연구는 거의 불모에 가까웠습니다.

이인호 교수님의 귀국 후 활동은 이들 분야의 연구를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키며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이인호 교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속속 러시아 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들이 창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고 계실 때인 1974년에 노어노문학과와 창설을 주도하셨습니다. 1979년도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로 부임하신 후에는 러시아 역사를 강의하면서 대학원에서 본격적인 러시아사 전공 연구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수의 석사 및 박사가 선생님의 지도 아래 배출되기 시작하여 역사학 분야에서 러시아사 연구가 제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이인호 교수님의 제안과 주도로 서울대학교에 노어노문학과가 창설되었고 그 이후 러시아 어문학을 전공하는 수많은 학사, 석사, 박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님은 1985년 슬라브 학회의 창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이 학회의 학술지인 『슬라브 학보』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슬라브 학보』는 어문학, 역사학, 사회과학을 망라하는 한국 최대의 러시아 연구 전문학술지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호 교수님은 1989년에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러시아연구소의 전신인 소련동구 연구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연구소는 1993년에 러시아연구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연구소의 학술지로 본 『러시아 연구』를 창간하셨습니다. 『러시아 연구』 또한 애초에는 연 1회 간행되는 학술지였으나, 이제는 연 2회에 걸쳐 간행되며 게재 논문의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는 전문학술지로 성장해 있습니다. 어문학, 역사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공자들

도 앞 다투어 『러시아 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한국의 러시아 연구 발전에 끼친 이인호 교수님의 공헌이 실로 다대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경탄하게 됩니다.

이인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던 중 1996년에 한국 최초의 여성대사로 임명되어 핀란드로 떠나셨습니다. 1998년 초에는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어 2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평생의 연구성과를 현실의 정치외교에 접목시켜 보는 보람을 맛보시기도 했습니다. 4년간의 대사직 수행 후 귀국하신 이 교수님은 2000년 초부터 2003년 말까지 한국학술교류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한국과 외국의 학문 종사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추기관의 장으로 탁월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2004년 초부터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시던 중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 고회를 맞으시게 되니 참으로 경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교회 기념호는 이러한 이인호 교수님의 공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저희 후학들이 마련한 조출한 감사의 장입니다. 이인호 교수님이 역사학자이시므로 수적으로는 역사학 전공자들의 논문이 주를 이루나, 문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들도 이 기념호 발간에 기꺼이 동참하였습니다. 기고자 모두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만, 이인호 교수님께서 흡족히 여기실지 저어됩니다.

이인호 교수님께서 부디 후학들의 작은 성의를 받아주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12월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